

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대 아니다...“과정의 공정함 위해”

“스펙 위한 노력 물거품 되는 느낌...박탈감 생겨”

“사실과 다른 측면 있어...토론으로 해소했으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믿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전하기 전부터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연봉 3500만원’ 발언 등도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를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져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취업준생 중 많은 이들은 이번 인천공항 정규직화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한모씨(27)는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은 건 아니었다. 무작정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공채를 다시 해서 일하는 사람 외에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그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준비생인 심구현씨(26)도

“차별주의자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소위 ‘정량적 스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정부의 정책 아래 물거품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규직 대상자들도 많은 고생이 뒤따랐겠지만,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누구는 한순간에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데 박탈감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웬만한 성적으로는 서류 전형도 통과하기 어렵다”며 “이런 현실을 정직원에서 아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을 노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정

규직 전환 사태에 대한 취업준생들의 비판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는 “인터넷에서 홍보글을 보고 서울대 평생교육 과정에 지원해 다녔는데, 정부가 모든 국립대 평생교육원을 학사로 편입하라고 지시해서 졸지에서 서울대생이 된 격”이라는 비유 섞인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이 ‘공정’이고, 다르게 노력한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 걸 ‘평등’이라 하고, 누가 공부하라고 했느냐고 목소리 높이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게 현 사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과장되면서 잘못된 인식이 분란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둔 김민성씨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30·익명)는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이 됐다”며 “정부에서 취업준생들의

채용 기회를 뺏는 게 아니라고 했고, 연봉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거짓 해명을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오유나 기자

순천 S교회 목사·장애인 폭행혐의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200명 이상 동의...국민청원 관리자 검토 중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전남 순천시 조례동 S모 교회에서 목사와 장애인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교회 집사(기자자동차 순천 모 대리점 대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재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란 청원이 접수돼 29일 오전 현재 200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 동의를 한 상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낮 12시쯤 전남 순천시 기자자동차 모 대리점 김모 대표의 부부(순천S교회 집사)가 같은 교회 출석하는 정모씨(65세·1급 정신지체장애인)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정 씨는 그 후유증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10일간

이나 입원했고, 퇴원후에도 머리 등에 통증이 지속 되어 3차례나 더 입원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보호자인 어머니 양모(82)씨가 지난 1월 23일 순천경찰서에 김씨 부부를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서 양씨 딸이 맞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회 집사 김모(66·여)씨가 해당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

하지만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양씨와 딸 정모(1급 정신지체장애인)씨를 불러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3~4차례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고, 어머니 양씨는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면서 이름을 쓰라고 해 얼떨결에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고소 취하장이었다는 억울한 사연을 남겼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순천경찰서는 자체 조사 후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경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또 김 대표가 지난 1월 5일에는 순천 S교회 설교자로 방문한 허모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폭행했고, 이날 폭행으로 허모 목사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으로 김모 대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 부부는 사람을 폭행하고 고소를 당해도 기적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죄 보다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 이상하게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 김 대표를 변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변호세력은 바로 미래한국당 송과구(갑) 국회의원 김모 의원이 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김 의원의 모친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외에도 순천 조례동 H아파트 주민대표로 있으면서 “H아파트 조명등 및 CCTV교체비”를 5배 이상 부풀려 지역주민들과 한국공익실천협의회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렇게 장애인과 성직자를 폭행하고도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안 한 김 대표 부부의 악행이 철저히 재조사되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마무리했다.

농협, 과도한 채권추심 논란...절차 무시 법원경매 진행

채무자 “독촉장 한장 보낸 뒤 16억 주차타워 경매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과도한 채권추심 행태에 반발이 일고 있다.

대출금 연체와 관련한 법적수속 등 회수조치를 실행하면서 농협 여신업무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이 무시된 채 법원경매까지 진행됐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 부당한 추심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나주에서 3층 규모의 주차타워(1층은 상업시설)를 운영하는 박모씨(52·여)는 지난 3월2일자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 통지서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인 나주매원농협에서 지난 2014년부터 4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16억원에 대해 이자 연체를 이유로 담보물건인 박씨 소유의 주차타워에 대해 압류와 함께 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나주시 대호동에 위치한 주차타

워는 3층 규모로 1층에는 10여개 상가로 구성돼 있다.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27억3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영난 등으로 이자가 연체된 건 사실이지만 최대 연체일수가 49일에 불과한데 나주매원협이 무리하게 법원경매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협이 여신규정을 무시하고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은 농협의 ‘갑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참고인, 내달 6일 광주지검서 조사

대검 검찰부 검찰3과가 방문해 진술 청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핵심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설 대표의 동료수감자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가 7월6일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검찰부가 직접 조사를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조사는 검찰3과가 광주지검을 방문해 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29일 한씨 측 등에 따르면, 한씨 측이 요청한 한진 총리 수사팀 검찰 및 수사의뢰 사건을 지난 23일 배당받은 대검 검찰부는 내달 6일 한씨를 광주지검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한씨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검찰청 검찰부장 천전으로 한모씨를 대리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예 대한 검찰요청 및 수사 의뢰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